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간분야 교류·협력 확대

대구국제식품전에 광주업체 참여
체육·예술·교육·금융권 교류 활발
남부거대경제권 등 균형발전 박차
영호남 화합 상징 브랜드 자리매김

광주시와 대구시의 '달빛동맹'이 양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넘어 예술, 교육, 금융, 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4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광주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을 비롯해 김치, 떡갈비, 제과·제빵, 전통주 등 14개 광주지역 업체가 참가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두 지역의 식품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두 도시에서 열리는 식품전에 '달빛동맹관'을 운영하며 농식품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또 공직자들과 함께 온라인 기부를 통한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최근 진행했다. 고향사랑 상호기부는 광주·대구시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공직자 12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등을 답례품으로 신청했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고향사랑 상호기부는 지난해 4월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됐다.

두 도시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달빛 시리즈'로 연데 이어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 '광주FC-대구FC 축구 경기'를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함께 관람하며 '달빛동맹'을 과시했다.

갈수록 극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열렸다. 지난 5월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와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 대구기상청, 광주기상청 등 4개 기관이 '제1회 광주-대구 폭염 대응 달빛포럼'을 개최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을 계기로 두 도시 간 탄소중립 조기달성과 기후변화 대응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두 도시의 폭염대응 사례, 폭염예측 기술 고도화 방안, 폭염 경감시설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022년 11월 하늘길·철길·물길을 여는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맺은 뒤 지난해 4월 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올해 1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등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며 '달빛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다.

물류·수송의 관문을 연 두 도시는 지난 2월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지자체와 함께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하며 동서화합과 공동번영,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달빛동맹'은 지자체 동맹에 그치지 않고 예술, 교육, 금융권, 사회단체, 경제계까지 민간 차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지역 청년미술작가들이 모여 최근 광주시립미술관과 관선재갤러리에서 '달빛교류전'을 열었다. 두 도시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 서로의 작품세계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자리가 됐다.

광주은행도 iM뱅크(옛 DGB대구은행)와 함께 '달빛동맹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영호남 지역을 오가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지역을 뛰어넘어 '달빛동맹'을 통해 공동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2021년 인공지능 융합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후 교사 수업캠프, 학생 해커톤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대구 영진전문대는 전남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에 올해 1학기 달빛강의실을 개설해 컴퓨터정보계열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조선이공대와 영남이공대는 지난해 '영호남 이공대 워크숍'을 열고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조선대와 계명대는 지난해 학생들의 세계 시민의식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지역 청소년은 물론 여성단체협의회까지 문화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대구시의 초청을 받아 지난 6월 대구 청소년들과 함께 대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탐방하는 교류행사에 참가했다.

대구-광주 청소년 문화교류는 달빛동맹 사업의 하나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다. 이번 광주청소년 교류단의 대구 방문에 이어 8월에는 대구 청소년들이 광주에서 광주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대구여성단체협의회도 해마다 두 도시를 서로 방문하며 화합을 다져가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인공지능시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전력

고등학생·지도교사 일일캠프

전남도는 25일 2024년 '노벨캠프'와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에 선정된 고등학생과 지도교사 등 23개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일캠프를 개최했다.

노벨캠프와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는 고등학생이 각 과학 분야 연구 주제와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연구활동에 나서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인 연구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일일캠프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여해 청소년의 높은 연구 열정과 도전 의식을 격려하고 '전남도 인재증서'를 수여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청소년들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성장하도록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노벨캠프와 지역사회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춘식 동신대 교수의 'AI 시대, 창의융합적 상상력과 질문하는 인간' 주제 특강, 목포대·순천대 등 대학 교수진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보고서 작성 컨설팅,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캠프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캠프를 통해 여러 교수님,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연구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이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의회 자치구의회 의장과의 소통간담회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들을 초청, 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상호 관심 사항 공유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협치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신수정 시의회 의장, 남호연 남구의회 의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광주시의회 제공

'전남 국립의대 설립' 중부권 2차 공청회 마무리

도민들 대상 의견 수렴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2차 도민공청회가 마무리됐다.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는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중부권역 2차 공청회로, 지난 21일 동부권(고흥), 22일 서부권(영암)에 이어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의료계와 교육계, 사회단체, 일반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모 공정성 확보 방안과 많은 도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병원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장성군의회 A의원은 "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와 "동서부 권역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역사인 에이티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는 공모 공정성과 관련해 "공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제3의 컨설팅업체와 로펌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모는 3단계의 독립된 전문가위원회로 진행되며, 각 위원회 위원은 철저하게 지역인사를 배제해 구성해 운영하고, 모든 공모 과정은 법무법인의 법적, 절차적 검토를 거치므로, 공모 공정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설치지역에 대해 "도민들께서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 중 전남도에 적합하고, 많은 도민이 바라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민들은 또 실제 의료수요와 의료취약지 등을 우선 반영한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과 미추천 대학과 지역에 대한 제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파트너는 "미추천 지역에 대해서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체 도민의 건강권 보장, 지역의료체계 완결성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부담, 실행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큰 관심과 열망 속에서 2차 공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전 도민이 바라는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 2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완료
시군 협의되면 18년간 4320만원

전남도가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관련, 도 지급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시군 지급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다.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가지 않는 한 2025년부터 1~18세에 매월 20만원씩 총 4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침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수당을 지원하면 오는 2041년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099명이 더 많은 1만425명(29.7% 증가)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교육부, '라이즈 호남권' 현장소통

추진상황 등 의견 청취

광주시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호남권(광주·전남·전북) 현장소통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라이즈는 교육부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하나로 대학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고등교육 및 지역혁신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지난 7월 출범한 '라이즈위원회'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의 추진상황과 지역 대학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 현장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소통에는 김헌영 라이즈위원회 위원장, 각 지역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소통단과 광주시·전남도·전북도 국장급 이상 공무원, 지역 라이즈센터, 전남대, 조선대, 광주여대, 광주보건대, 조선이공대 등 각 지역 대학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약 2조원 규모의 라이즈 예산 확보를 목표로 재정당국과 협의 중으로, 오는 9월 중 각 지자체에 보조금 규모를 임시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 라이즈 기본계획의 비전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업(UP) 그레이드'로 정하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창업과 실증의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대학의 직업·평생 교육 확대 등을 목표로 정했다.

라이즈프로젝트와 단위과제가 구체화되면 오는 9월 중 18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실무협의체와 11개 산학연협의체, 자치구 등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중 '(가칭)지역혁신대학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